

‘정감록’과 ‘행운의 편지’

— 두 개의 전후, 하나의 운명론

전지나*

1. 전후(戰後) 과학 담론의 성행 속 ‘미신’의 위치
2. 혼돈기의 대중이 주술을 향유하는 방식
 - 2-1. 과학이 된 믿음과 해석의 논리성
 - 2-2. 오락이 된 믿음과 해석의 유희성
3. 전후 소설에 나타난 (반)근대성에 대한 사유
4. 결론을 대신하여: 냉전의 시대 대항담론으로서 주술의 의미

국문요약

본고는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예언서 ‘정감록’의 열풍이 공존했던 두 전후(戰後)의 풍경을 조명하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중에게 ‘미신(迷信)’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정부가 주도한 대대적인 ‘신생활운동’ 속에서도 거리에는 무당과 점쟁이가 범람하고 ‘행운의 편지’가 주기적으로 재등장해 사회 문제화됐던 해방 이후 전후의 풍경에 대한 문화론적 고찰이자, 민중의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증식했던 맹목적 믿음에 대해 재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방 후 가공할 만한 원자탄의 위력은 매체를 통해 풍문처럼 확산됐고, 대중이 근대적 과학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랜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진실성을 갖고 있는 ‘정감록’은 오히려 논리적이고 신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의전담 조교수

퇴할만한 출처였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신이 오락거리로 대중의 일상과 더욱 공고하게 밀착되어갔고, 이 같은 배경하에 발표된 최요안의 <의사없는 마을>(1950), 장용학의 <미련소묘>(1952), 주요섭의 <불느냐 떨어지느냐?>(1958)는 모두 과학적 신념을 가진 근대적 남성주체가 미신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민중 혹은 자기 자신의 한계와 직면하는 양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세 소설에는 각각 과학을 신봉하는 의사, 모더니스트 소설가, 미신의 진상을 목도했던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근대적 과학 체계에 대한 회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과학과 미신, 근대적인 것과 반근대적인 것의 경계는 모호해지며, 이들은 그간 반근대적, 전근대적이라 치부해 왔던 미신이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살펴본 것처럼, 두 번의 전후 ‘정감록’과 ‘행운의 편지’ 등 일련의 미신 행위는 대중의 불안과 막연한 희망을 통해 증식해 나갔고, 당국은 이 불온한 유언비어를 척결하고자 했지만 그 근원적인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일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곧 전후의 미디어와 문학텍스트는 근대성에 대한 회의가 엄습하는 순간, 과학에 대한 확신에 균열이 발생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으며, 미신은 전쟁에 대한 불안과 당국에 대한 회의가 교차되었던 시대의 병폐 및 당대 민중의 필요성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좌표이기도 했다.

(주제어: 전후(戰後), ‘정감록’, ‘행운의 편지’, 과학, 미신, 근대성, 유언비어, 급기)

1. 전후(戰後) 과학 담론의 성행 속 ‘미신’의 위치

본고는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예언

서 '정감록'¹⁾의 열풍이 공존했던 두 전후(戰後)의 풍경을 조명하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중에게 '미신(迷信)'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곧 전쟁을 거치면서 근대적 과학과 새로운 생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담론생산자들이 척결하고자 했던 불확실한 믿음이 어떻게 대중의 일상과 밀착됐는지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이는 정부가 주도한 대대적인 '신생활운동' 속에서도 거리에는 무당과 점쟁이가 범람하고 '행운의 편지'가 주기적으로 재등장해 사회 문제화됐던 해방 이후 전후의 풍경에 대한 문화론적 고찰이자, 민중의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증식했던 주술에 대해 재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국 일본에 의한 강제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의식과 일상의 근저에 있던 무속적 요소는 '미신'으로 규정되어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배치됐다.²⁾ 주지할 점은 해방 이후에도 담론생산자들은 주기적으로 미신 소탕에 대한 의지를 발현했고, 그 과정에서 대중의 일상과 연계된 주술적 요소는 여전히 미신으로 비하됐다는 점이다. 이처럼 '미신(迷信)'이라는 명명 자체에 민간 신앙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자리잡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당대 사회-문화 속에서 미신으로 총칭됐던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확산됐고 또한 수용되었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곧 당대 미신이라는 어휘가 통용되는 맥락에 주목하여, 이를 해방 이후부터 한국 전쟁 이후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상을 고찰하기 위한 가치중립적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1) 주지하다시피 '정감록'은 민중에서 전해오는 서책이며 식민지시기 이후 지속적으로 동명의 책이 발간되었으나, 본고의 경우 책에 실린 내용과 관련해 생산된 다양한 담론들을 논하고 있기에 '정감록'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다만 출판된 서적 자체를 지칭할 때는 『정감록』으로 표기한다.

2) 이방원, 『일제하 미신에 대한 통제와 일상생활의 변화』, 『동양고전연구』 24, 동양고전학회, 2006, 284-285쪽,

본고의 경우 전후 민간에 팽배했던 미신적 요소 중에서도 대담하게 정치 상황을 진단하거나 민심을 미혹케 하는 불순분자로 간주됐던 ‘정감록’과 ‘행운의 편지’에 주목하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정감록’은 조선 중엽 이후 유포된 예언서이며, ‘행운의 편지’는 식민지시기 외부에서 유입된 유행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이들을 함께 논하는 이유는 두 개의 전후 ‘정감록’과 ‘행운의 편지’와 관련된 유언비어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는 당국 입장에서 미개한 미신인 동시에 위험한 주술로 간주되어 척결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해방 후 잡지 『신천지』가 기획한 ‘정감록’ 특집 중 6종의 관련 해설서가 판매되고, ‘행운의 편지’가 유행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 실린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³⁾ 본고는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아래로부터 생산된 대중적 지식 체계’인 미신이 민간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지에 주목한다. 그리고 전후 가장 유행했던 주술적 요소이자 불온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졌던 ‘정감록’과 ‘행운의 편지’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제국의 패망과 8.15 해방이라는 감격이 가시기 미처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의 민중은 해방의 민낯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쌀값 폭등에 따라 굶주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왜정 경찰이 군정 경찰로 탈바꿈하여 폭력적으로 사회를 통치하던 상황에서, 민중은 미신에 기대어 새

3) 『幸運의 편지』 승내가 떠돌며 鷄龍山에서 바위가 터지며 나왔다고 하는 秘記니 符呪니 流言이 퍼져지고 天然痘가 流行되고 發疹티부스가 생겼다하여 豫防注射와 攝生에 留心함이 없이 울긋불긋한 조각 헌겉을 새끼줄에 끼워 大門간에 느리기가 일수요 업나무 토막과 젓나무가지를 팔러다니는 장사아치가 이 골목 저 모퉁이에 드나들고 麥酒 空瓶을 꺼꾸러 달어매놓고는 예험 내 집에는 疫神이 감히 侵犯치 못하렷다! 큰 기침하여 悠悠自若한 家庭이 一國의 首府 百五十萬口 長安에 其 數를 헤아릴 수 없으니 自主獨立 訴願을 城隍堂에 하지 않는 것이 奇異하다. (임경일, 『정감록에 대하여』, 『신천지』, 1946.7, 99쪽.)

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다. 미신과 유언비어의 원천으로 전근대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받았던⁴⁾ 예언서 '정감록'은 그 과정에서 다시 민중에게 널리 읽혔고, 이들은 정(鄭)씨 성을 가진 진인(真人)이 계룡산에 도읍을 정해 새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예언에 몰두했다. 미군정은 과거 총독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 같은 유언비어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지만⁵⁾, 하수상한 시절에 절망을 통해 확산되는 이야기를 금할 수는 없었다.

단독정부 수립을 전후로 미신은 민주주의와 과학의 반대편에 배치됐다. 당시 미신은 '봉건유습'이자 당국의 민도(民度)를 저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았고, 언론은 "충청남도 계룡산에 육십 여개의 종교단체가 터를 잡고 무지한 민중의 허영심을 불어 넣고 있으며 허무맹랑한 정감록의 전설을 예언서로 믿고 있는 유식계급이 많다."⁶⁾며 통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무당, 점쟁이, 손금쟁이 등이 거리를 점령해 국민대중의 길흉화복을 진단하면서 사회 문제화됐다. 담론생산자들은 이 맹목적 믿음을 "불안정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귀취를 잡지 못한 민심의 약점을 포착한 행위라며, 20세기 과학에 역행하여 무제한의 폐단과 사회악을 현출하는 터무니없는 운명론"으로 일축했다. 흥미로운 점은 미신쟁이들이 개인의 사주팔자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까지 운운하고 다녔다는 점으로, 이들은 남북통일과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같은 "심상치 않은 정치적 문제"⁷⁾들을 거론하면서 당국의 주시를 받았다. 미신쟁이들은 민중의 불안 심리에 기대어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상황까지 논하면서 더욱 문제시됐던 것이다.

4) 김탁, 『정감록 새 세상을 꿈꾸는 민중들의 예언서』, 살림, 2005, 229-230쪽.
5) 『횡설수설』, 『동아일보』, 1946.4.9, 1쪽.
6) 『아직도 족보 타령 없애자 봉건 유습』, 『동아일보』, 1949.10.31, 2쪽.
7) 『무당, 점쟁이 격증 맹랑한 예언 뿌리며 횡행』, 『동아일보』, 1949.8.30, 2쪽.

이에 따라 민중의 생활을 일소하겠다는 목적으로 대대적인 ‘신생활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신은 그 주요 척결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문교부는 신생활운동의 첫 사업으로 미신타파주간을 마련하고 경찰의 지원을 얻어 강력하게 전개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언론은 이 같은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과학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너무나 비과학적, 비합리적이라며 생활의 과학화가 민도를 향상시키고 민족의 번영과 융성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강조했다.⁸⁾ 미신타파주간은 1949년 10월 10일부터 한 주간 시행됐고, “과학으로 생활하자”는 슬로건에 맞춰 거리의 무당, 점쟁이, 풍수쟁이, 손금쟁이의 소탕 운동이 이루어졌다.

주목할 점은 담론생산자들이 지칭하는 새로운 시대 과학의 실체 역시 불분명했으며, 이들의 발화 속에서 과학은 문명, 민주주의, 건강한 신생활 등 과거 체감했던 서구적 근대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새로운 과학적 생활의 구체적 형태는 모호했지만, 이들은 “원자탄이 로케트를 타고 달나라 여행을 가보겠다고들 하는 판”⁹⁾인 전세계적 과학의 추세에 미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미신타파 선전은 ‘용두사미’란 비판만 떠안고 끝나버렸다. 민중 입장에서 “답답한 심정에 뚫고 드는” 미신에 기대지 않는 것 이란 불가능했고, 이들이 의지하는 점쟁이들 역시 “먹고 살만한 직업이 없기에” 그 불안을 파고들었다.¹⁰⁾ 흥미로운 점은 언론이 미신을 반정치적이고 반과학적인 병폐라 비판하는 한편으로,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지형을 진단할 때는 ‘정감록’에 입각한 풍수지리¹¹⁾를 동원했다는 점이

8) 『미신타파운동』, 『경향신문』, 1949.9.28, 1쪽.

9) 『미신을 타파하자』, 『경향신문』, 1949.2.13, 3쪽.

10) 『소기의 성과는 어디로? 반성이 있어야 할 미신타파운동』, 『동아일보』, 1949.10.17, 2쪽.

다. 불온한 미신은 또 다른 전쟁의 공포가 확산되던 시기 민중의 일상과 유착되어 있었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미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민간에서 미신에 더욱 천착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실례로 후방 부산에서는 '전시국민생활실천요강'¹²⁾과 무관하게 전염병의 창궐 후 도처에서 굿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언론은 "남태평양 미개 토인의 수제(首齋)를 연상케 하는 이 엽기적인 광경을 유엔군 장병들이 보고 조소하는 풍경"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경남 경찰국장은 미신행위를 하는 자를 단속하겠다고 나섰다.¹³⁾

미신은 본격적인 전후 복구 시기에 돌입한 이후에도 확산됐다. 식민지시기 정도령을 빙자하여 6만 명의 신도를 포섭했던 사이비 교주가 전후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 다시 자신을 황제라 칭하며 신도들을 모으다 검거됐고¹⁴⁾, 50년대 중반에는 "과학 세계를 비웃듯이" '정감록'과 '토정비결'이 재유행했으며 무당집이 대성황을 누렸다. 특히 '정감록'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은 예언의 신빙성을 제공하며 민중을 끌어들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해방 이후와 마찬가지로 '정감록'은 선거전마다 정치 변혁론과 연계되어 선전에 동원됐다는 점이다.¹⁵⁾ '정감록'은 절망의 피신처인 동시에 예측의 당위성을 찾는 근거가 되었다.

살펴본 것처럼 '정감록'이 전쟁에 대한 불안과 새 세상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하여 증식했다면, 행운의 편지는 역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11) 「총선거와 지방 실정 기호 답사기」, 『동아일보』, 1950.5.13, 1쪽.
12) 1951년 마련된 '전시국민생활실천요강'에서 '미신타파'는 '도덕 엄금', '관혼상제 간소화'와 함께 '폐풍 교정' 대상으로 배치되었다. (김은경, 「1950년대 신생활운동 연구」, 『여성과 역사』 11, 한국여성사학회, 2009, 209쪽.)
13) 「무당 판수 취제 『굿』으로 해가지는 향도의 봄」, 『동아일보』, 1951.3.20, 2쪽.
14) 「깨어진 "황제"의 꿈」, 『경향신문』, 1953.10.7, 2쪽.
15) 「기자석」, 『경향신문』, 1956.3.31, 1쪽.

일말의 기대감을 안겨주면서 주기적으로 유행할 수 있었다. 행운의 편지가 언론에 처음 보도된 것은 1920년대 중반이었다. 이미 192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에 유행했던 행운의 편지는 20년대 중반 다시 유행하는데, 발생지는 ‘태평양 건너 미국’이며 심심한 내용의 편지에 대해 경찰은 ‘불온만 보이는데 “주의”하고 “경계”한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¹⁶⁾ 행운의 편지는 30년대 중반 다시 유행했다. 이때 발신자의 명의를 불경기퇴산통신무진(不景氣退散通信無盡)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최초 기명자에게 돈을 송부하라는 내용이 첨부되는 등 사기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¹⁷⁾ 전쟁을 앞두고 편지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대유행했으며,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편지의 유행을 막기 위해 각 도지사와 학교 교장에게 엄중한 통첩을 전한다.¹⁸⁾ 이처럼 당국의 통제를 넘어 증식했던 행운의 편지는 사회 풍교 및 훈육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제 대상이 됐다.

편지는 해방 이후 다시 유행했다. 다만 이제는 편지의 유행 요인으로 해방기 용지난 속에서 “종이를 팔아먹기 위한 장난”이라는 추정이 더해졌다. 관련하여 당시 신문기사는 편지의 원천을 영국의 문인 버나드 쇼로 추측하며, 나치하 저항운동의 수단이었던 편지가 전후 성적, 정치적인 내용을 담아 유행하였다며 “단호한 과학적 태도”를 요구하기도 했다.¹⁹⁾ 행운의 편지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였다. 여기서 불온한 편지의 발신자를 추측하는 과정에 냉전질서에 대한 인식이 작용했다. 전후 갈홍기 공보처장은 내무장관, 법무장관과 협의해 “일본에서 발송되어 온 행운의 편지가 어떤 국제적인 모략에 의한 신경전의

16) 『보는대로 듣는대로 생각나는대로』, 『동아일보』, 1926.8.12, 2쪽.

17) 『“불경기퇴산통신무진” 행운의 편지 대유행』, 『동아일보』, 1935.10.11, 2쪽.

18) 『“행운의 편지”에 계엄』, 『동아일보』, 1939.8.24, 2쪽.

19) 『날려오는 행운의 편지, 누구의 소행? 봄과 함께 부산에도』, 『민주중보』, 1949.4.5, 2쪽.

일종이자 전시하 국민의 사기에 미치는 바가 적지 않으며 민심과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다.²⁰⁾ 곧 행운의 편지는 국제적 모략과 관련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과거 식민지시기보다 심각한 경계 대상으로 간주됐다. 당시 행운의 편지는 “행운이 없는 세상에서 좋은 운을 만들어보자는 한가한 사람들의 장난”²¹⁾으로 인식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당국에서는 계엄주의보까지 발령하며 경계하고자 했다. 그 결과 편지는 전후 간첩단, 즉 제오열이 유포한 유언비어와 연계되어 “민국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엄중 처단 대상으로 지정됐다.²²⁾ 그러나 ‘정감록’ 관련 유언비어와 마찬가지로 행운의 편지 역시 쉽게 척결되지 않았으며, 1950년대 후반에는 치안국의 감시 대상으로 지정되어 편지를 발송한 사람에게 협박죄가 적용되기도 했다.

그간 당국 입장에서 불온한 것으로 치부된 유언비어에 대한 연구로는 변은진, 오제연의 논의에 주목할 수 있다. 변은진은 일제 말 시국에 관한 유언비어가 배포됐고, 불온문서와 유언비어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됐음에 주목한다. 실례로 1937년 8월 흥남질소비료공장 직공사이에 소학교 학생이 폭탄을 들고 경성부 신촌도로를 폭파하려 했다든가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조선인이 단결해 일본인을 살해했다는 유언비어가 돌았고²³⁾, 저자는 이상의 유언비어가 조선인을 결속시키고 일제의 패망이라는 희망을 표출하고 있었다고 정리한다.²⁴⁾ 오제연은 1970년대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적 유언비어가 ‘뜨소문’을 넘어 국민의 잠재된 ‘여론’이 되

20) 『「행운의 편지」 단속 갈 공보처장이 경고』, 『경향신문』, 1954.2.8, 2쪽.

21) 유관자, 『경향싸롱』, 백조사, 1954, 88쪽.

22) 『행운의 편지에 일언』, 『동아일보』, 1954.2.5, 2쪽.

23) 변은진, 『유언비어를 통해 본 일제말 조선민중의 위기담론』, 『아시아문화연구』 22,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67쪽.

24) 변은진, 『유언비어를 통해 본 일제말 조선민중의 위기담론』, 『아시아문화연구』 22,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74-75쪽.

었다며, 유언비어라는 형태의 불온이 체제의 균열을 가져왔다고 설명한다.²⁵⁾ 이상의 연구는 지배질서의 종식이라는 민간의 믿음이 유언비어 형태로 유포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하여 문학에 나타난 미신에 대한 연구로, 개화기부터 1980년대까지 소설에 나타난 미신의 양상을 규명한 백지영의 논의²⁶⁾에 주목할 수 있다.

미신 타파운동의 배경을 제공했던 전후 과학 담론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성과가 있다. 이필렬은 해방 후 한반도에서 원자력이 해방자이자 구원자로서 여겨졌고, 이 같은 이미지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층 강화되었음을 분석한다.²⁷⁾ 공임순은 아시아의 변방인 한반도에 유언비어 형태로 상륙한 원자탄이 “과학기술과 자본 및 지식/정보가 총체화된 과학문명의 상징이자 파국의 전조”였다고 설명한다.²⁸⁾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일본의 패망 과정에서 원자탄이 전쟁의 승리를 매개하는 궁극적 무기로 전 세계에 인식되어 원자탄의 소유에 대한 매혹을 추동해 전후 원자/핵 시대가 개막되었다며,²⁹⁾ 해방 후 조선에서 원자탄은 “탈식민화의 절대(궁극) 무기”로 인식될 수 있었다고 정리한다.³⁰⁾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신생활 운동에 대한 연구로는 임종명, 김은경의 논의에 주목할 수 있다. 임종명은 단정기에 진행된 신생활운동

25) 오제연, 「1970년대 ‘유언비어’의 불온성」, 『역사문제연구』 32, 역사문제연구소, 2014, 210, 221쪽.

26) 백지영, 「한국 소설에 나타난 무속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7) 이필렬, 「한반도에서 원자력이 지닌 해방자·구원자 이미지와 그 결과들」, 『동방학지』 16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6, 25-26쪽.

28) 공임순, 「원자탄의 매개된 세계상과 재지역화의 균열들」, 『서강인문논총』 3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15쪽.

29) 공임순, 「원자탄과 스파이, 전후 세계상의 두 표상」, 『민족문화사연구』 48, 민족문화사연구소, 2012, 252쪽.

30) 공임순, 「원자탄과 스파이, 전후 세계상의 두 표상」, 『민족문화사연구』 48, 민족문화사연구소, 2012, 254쪽.

에 대해 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주의적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새로움의 추구 속에서 생활의 과학화와 합리화를 주안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태평양 전쟁기 일본의 반발에 직면했던 서구의 근대주의가 탈식민 남한에 등장해 재구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³¹⁾ 김은경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건설과 재건을 위해 등장한 ‘위로부터’의 근대화운동인 신생활운동의 소비 통제와 가정 개량적 성격에 주목하며, 이후 새마을운동과의 연계성에 대해 논한다.³²⁾ 이상의 연구는 전후 담론생산자들이 과학의 시대를 역설하면서 신생활운동의 척결 대상으로 미신을 지목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당국과 언론이 과학의 반대편에 미신을 배치했던 것과 달리 민간에서는 미신을 과학처럼 신봉했고, 당국의 단속에 아랑곳없이 공인되지 않은 미신을 오락으로 향유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곧 국가가 필요에 따라 미신을 다루어왔던 것처럼, 민간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하여 현실을 지탱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2장에서는 두 번의 전후 민중이 자신들의 필요에 입각해 미신을 소환 및 소비하는 양상을 밝히고, 3장에서는 과학적 삶과 미신적 삶을 관련지어 고찰하는 세 편의 소설 분석을 통해 작가가 근대성과 반근대성을 사유하는 방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식인-작가가 서술한 소설은 담론생산자의 계몽적인 관점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중-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 대중의 감성구조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매체를 통해 대중이 주술을 향유하는 방식을 밝히고, 이어 당대 발표된 소설이 이 같은 양상을 어떤 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

31) 임종명, 『해방공간과 신생활운동』, 『역사문제연구』 21, 역사문제연구소, 2012, 259-261쪽.

32) 김은경, 『1950년대 신생활운동 연구』, 『여성과 역사』 11, 한국여성사학회, 2009, 233-235쪽.

해 결론에서는 냉전의 시대 당국의 근대화 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민간의 주술의 의미에 대해 모색해보려 한다.

2. 혼돈기의 대중이 주술을 향유하는 방식

2-1. 과학이 된 믿음과 해석의 논리성

식민지시기 『정감록』은 같은 해 일본과 조선에서 동시에 출판됐다. 이전에 『정감록해제』(1913) 같은 책이 발간되었지만, 20년대 발행된 해석본의 경우 출간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1 운동은 일본 위정자에게 충격을 던졌고, 1920년대 초반 독립에 대한 소문과 예언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조선총독부는 ‘정감록’을 더욱 경계하게 됐다.³³⁾ 이에 따라 1923년 일본에서 발행된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정감록』은 조선의 미개성을 폭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판됐고, 도쿄에서 들어온 『정감록』이 인기를 끌자 같은 해 조선에서도 『정감록』이 발간됐다. 같은 해 김용주의 『정감록』은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현병주의 『비난정감록진본』은 근화사에서 발간됐다. 이 중 가치중립적으로 쓰였다는 김용주의 『정감록』 광고의 경우 여러 출판사가 동시에 책을 출간하는 상황에서 독자의 선택을 바라는 문구를 삽입한 반면, 『비난정감록진본』 신문 광고는 “도참의 독법은 원래 위험치 안인 것이 안이니 일반 독자는 공연히 망동치 말기를 경계하여 두는 것”이며 예언서에 대한 맹신의 위험성을 논한다. 주지할 점은 『정감록』의 연이은 발행은 3.1 운동 이후 민간에 퍼진 유언

33) 백승중, 「백승중의 정감록 산책 (19) 1923년 일본인들의 정감록 처형」, 『경향신문』, 2005.5.19.

비어와 관련되어 있었고, 이후 '정감록'은 청림교³⁴⁾, 성도교, 그리고 백백교 등 사이비종교의 실체를 고발할 때 등장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백백교 교주 전용해는 신도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정감록'의 예언 구절을 활용했고, 언론은 사이비종교의 문제를 다룰 때 예언이 동원됐던 양상에 대해 언급했다.³⁵⁾

주지하듯이 일제 말기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던 '정감록'은 해방 후 관련 저서 열풍이 불고, 신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시 담론장에 등장한다. 해방 이후 5년간 발간된 관련 저서는 『비난정감록진본』(1945), 『원본정감록진본』(1946), 『정감록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1948) 및 국문 해설서 『본원 증감록』(1946) 등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수중에 이른다. 이 중 해방 직후 '정감록' 관련 담론은 과학의 시대 예언서가 가진 비합리성과 비과학성을 비판하고, 예언서를 읽는 민중이 지녀야 할 자세를 강조했다.

1945년 발간된 운정도인의 『비난정감록진본』은 『정감록』의 근거 없음(無據)을 논증하는 저서이다. 그에 따르면 과거 이 책은 “일종 불가사의의 마력을 함유하여 혹시는 국란의 이용물도 되고 혹시는 모역자의 선동하는 매개물도 되고 혹시는 간당의 무함(誣陷)하는 구실 재료”가 됐다.³⁶⁾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을 일반 사회에 반포하였다면 오히려 그 회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구절로, '정감록'을 금기시한 사회적 배경이 책에 대한 불가항력의 믿음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하는 부분이다.

34) 이 중 청림교에 대해서는 무단통치기에 주목되는 지하 활동을 펼친 단체로, 신적 존재와의 감응을 통해 개인이 인의도덕과 지용(智勇)을 갖춘 존재가 되어 국권회복을 목표로 했던 비밀종교결사단체로 해석하기도 한다. (조경달, 『민중과 유토피아』, 허영란 역, 역사비평사, 2009, 208-215쪽.)

35) 『백백교 사건 논고 요지』, 『동아일보』, 1940.3.20.-3.24, 2쪽.

36) 운정도인, 『비난정감록진본』, 세창서관, 1945, 7쪽.

(전략) 非難者는 今日에 오히려 鄭鑑錄의 禍가 가져와 갖치 커짐을 憂慮하는 同時에 일즉 鄭鑑錄의 禍를 預防함에는 鄭鑑錄의 그 文子가 出生하든 當時로 그 文子를 秘藏치 말고 一般社會에 頒布를 是事하얏더면-前時代는 内幕에 그러치 아니한 理由도 잇지마는-鄭鑑錄이란 題號까지 그 卽時로 埋葬되얏을 것을 斷言 하노라.³⁷⁾

관련하여 국어학자 홍기문은 월간지 『신천지』에 「정감록의 분석적 연구」³⁸⁾를 연재해 그 유래와 내용 등을 분석했으며, 임경일은 「정감록에 대하여」를 통해 해방 이후 『정감록』의 인기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해부한다. 그는 묵시록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예언자의 무기이자 피난처라며, 책의 내용도 실상 체계가 없는 모순으로 나열된 문자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과학은 믿지 않고 행운의 편지나 ‘정감록’을 믿는 민중들이 성황당에 자주독립을 빌지 않는 것은 괴이하다고 조소하며, 예언서 구절을 통해 사회 정세를 읽고자 하는 시도를 비판한다. 이어 이만한 예언서는 원자탄과 공산주의적 민주주의, 민족주의적 민주주의를 알고 있는 국민학교 학생은 누구나 쓸 수 있으리라 말한다.

그러나 鄭鑑錄을 시방 時勢로 보는 사람이 있지 臨津以北再作胡地란 句節은 三十八度緯 以北 蘇聯軍이 占領한 豫言이란다. 그러면 借問하거니와 胡가 蘇聯軍일진데 再作이 웬 말이며 以北서는 土地를 農民에게 無償으로 준다는데 土價湧於千萬金은 웬 말인가.³⁹⁾

여기서 참조할 점은 해방 후 민간에서 ‘정감록’을 신봉하게 된 배경에는 3차 대전의 가능성 및 당시 해방자로서 조선에 인식되었던 원자탄-원

37) 윤정도인, 『비난정감록진본』, 세창서관, 1945, 2-3쪽.
38) 홍기문, 「정감록의 분석적 연구」, 『신천지』, 1946.7.-8.
39) 임경일, 「정감록에 대하여」, 『신천지』, 1946.7, 102쪽.

자력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살펴본 것처럼 당대 언론은 전세계적 과학화와 일상의 과학화를 논하면서 미신의 척결을 신생활운동의 일순위 과제로 지정했다. 그 과정에서 해방 후 매체는 2차 대전 시기 '원자탄의 비밀'을 파헤치고 3차 대전의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원자의 장래'를 예측하는 기사를 실었다.⁴⁰⁾ 실례로 잡지 『민성』은 “원자로부터 과학은 전쟁의 가장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내서 일본에 최후 일격을 주고 또 인류가 요망하는 평화를 위하여 무기가 될 수 있는 웅대한 에네르기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⁴¹⁾며 독자에게 원자의 원리, 개발 과정,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이 '신시대의 도래'를 외쳐도 민간에서 3차 대전 혹은 과학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란 불가능했고, 이들은 복잡한 국내외 정세를 예측하기 위해 '정감록'을 참조했다.

1948년 해방서림에서 발간된 최수정의 『정감록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은 미신을 신봉하는 민중을 계도 대상으로 비판하는 대신, 이들이 미신에 천착하게 된 배경을 고찰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조선의 독립이 지연되고 미래를 선불리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감록'이 국제정세의 축도이자 논리적인 해설서가 됐다는 것이다. 계급주의적 입장에서 인민의 해방자를 기다리는 저자는, 해방 이후의 정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朝鮮은 東은 滄海요 西는 黃海인 地中海와 같은 特殊地帶에 位置한 東洋의 「빨간」 半島이다. 때로는 印度文化 中國文化 日本文化 인제는 蘇聯文化 美國文化까지 받고 있다. 더욱이 朝鮮의 三八線은 世界 兩大 「뿌력」 境界線의 焦點이

40) 채정근, 「원자탄의 비밀은 어떻게 지켰나」; 다손 카터, 「원자의 장래」, 옥명찬 역; 홍기문, 「정감록의 분석적 연구」, 『신천지』 1946.8 참조.

41) 쯔나단 길본, 「원자폭탄의 정제」, 소우생 역, 『민성』, 1945.12, 6쪽.

라고 하리만큼 이란다 朝鮮은 世界的 縮圖이라고 한다. 朝鮮은 世界的 舞臺로 進出 하련다.

朝鮮은 自主性を 喪失하였다니보다 無我的 立場에서 이 世界的 雰圍氣 속에서 世界的인 것을 胚胎하고 있지 않는가? 朝鮮의 獨立은 世界的 關心이며 朝鮮의 統一은 世界的 宿題이다.⁴²⁾

저자는 조선의 독립이 지연되는 이유로 자주성 부족과 뿌리 깊은 사대성을 제시하며, “『세계의 전도와 조선의 운명』을 관련하여 점치고자 하는 욕망이 예언의 나라 조선에서 『정감록』이란 형태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정감록’은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아니라 국제 정세를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어 책의 출판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朝鮮 固有信仰과 各國 外來信仰으로 造成된 『民間信仰』을 基礎로 하고 國際情勢와 國內情勢와의 週期的 變遷으로 결정되는 『社會情勢』를 迷宮 建築으로 한 『鄭鑑錄 解夢』에 가르노와 있는 進路(運命의 行路)를 發見할 수 있게 鄭鑑은 그 端緒를 우리에게 附與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 端緒는 곧 『利在弓 弓』이란 統一理念일 것이다.⁴³⁾

당시 민간에서는 ‘정감록’이 당국이 해명하지 않고 또한 설명할 수도 없었던 미혹한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최수정이 설명하듯이 “독립은 날로 지연되고 민중의 생활고는 심각함에 따라 범 죄는 날로 격증하고 테러가 횡행하고 모리사건과 도적 사건이 빈번하며 민족의 진로는 좌우로 혼선되어 좌충우돌로 인해 혼란한 조선”에서 민중은 케케묵은 ‘정감록’에 기대어 생활지침을 발견했던 것이다. ‘정감록’에 대한 저자의 입장은 가치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그 역시 책 구절에 기

42) 최수정, 『정감록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해방서림, 1948, 2쪽.

43) 최수정, 『정감록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해방서림, 1948, 4쪽.

대어 국제 정세를 진단해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는 “최후 대란은 어떤 성격으로써 어느 년도에 폭발될 것인가”라 질문하며 그 대답으로 “利在弓弓=殺我者誰요 小頭無足(黨?)요 活我者誰요 身入穴(窮?)이다”라는 구절을 언급하고, 전란의 성격을 구명하려면 우리 인민에 대해 방해할 자를 구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앞으로 동족상잔의 참혹은 없을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며, 단일민족의 분쟁 요인 및 삼차대전 발발 요인으로 “이데올로기전”을 언급한다. 이어 이 구절을 원자탄 담론과 연결시키고, 원자탄을 ‘해방자’로 간주하던 분위기의 대척점에서 이것이 인류의 멸망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리고 또한 一說은 小頭無足を 『火字』로 解釋하는 모양인데 鑑訣에 『積尸如山이니 人景永絶이니 流血成川이니 鷄犬無聲이라』하니 『原子彈』을 聯想하는 모양이다. 勿論 丙子胡亂에 『雪禍』를 聯想하듯이 黨亂에 究竟被禍는 原子彈일 것만 누구나 否認치 못하리다. 『인디안』 大學 動物學 教授 H 물리 博士의 『시카고』 原子科學回報에 發表된 論文에 依據한다면 原子爆彈의 放射能으로 因한 突然變異의 結果는 將次 廣島나 長崎의 爆發로 毒은 사람들과 같은 多數人間이 死亡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原子爆發 當時 殘存者와 胚胎 속에는 無數한 微粒 時限爆彈이 扶植되어 長久한 時日을 通하여 將次 胚胎를 破壞하여 死亡케할 것이다. 이 胚胎는 日本人들의 것이라 하더라도 突然變異를 받은 遺傳因子는 將次 增加하여가 交通과 移民으로 因하여 世界 各地에 播種될 것이며 떨어져 許多한 우리의 子孫들도 遺傳的 毀損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⁴⁴⁾

저자는 책의 구절을 근거로 과학-원자무기에 대해 희망을 피력하기보다 인류가 그 과학으로 인해 멸망할 수 있다는 묵시론적 세계관을 표출한다. 하지만 절망에 머무르는 대신, 조선 인민을 구원할 ‘진인’에 대한 기대감을 표한다. 독립은 지연되고 사회는 혼란함에 따라 영웅 대담론이 대두하고 있는데, ‘정감록’ 속 ‘도령’은 ‘도의적 대통령’으로도 해석되

44) 최수정, 『정감록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해방서림, 1948, 30쪽.

는 동시에 무단정치에 신음하는 조선인민의 숙원이라는 것이다. 이어 예언의 내용을 국제 예언과 국내 예언으로 구분한 후, 전자와 관련한 구절이 “조선은 봄을 만나고 청국은 새벽에 일어난다. 로국은 꽃이 지고 일본은 해가 진다. 불국은 치세하기도 어렵고 영국은 체면 차리기도 어렵다. 독일은 모든 이권을 점검하고 미국은 「은나」 구제하리라”는 지침을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 국내 예언과 관련해서는 「을유년에 닭이 울자 해방되고 병술년에 개짓자 왜적이 철퇴하기 급하고 임진년에 성인이 출마하여 갑오년에 즉위하기 급하리라」는 구절이 「군정 삼년에 임정 팔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⁴⁵⁾

결론에 이르면 ‘정감록’의 비결이 ‘혹세무민의 자료’이며 독자는 “객관적 법칙성을 파악하는 사고방식과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정확한 비판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예언에 대하여 취사선택으로서 재인식 과정에서 비판적 태도로서 정확한 신념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변증법적 신앙」이라고 하겠고 일종 논리적 신앙이라고 하겠다.”⁴⁶⁾고 정리한다. 그러나 그 역시 ‘정감록’에 기대어 국제 정세를 추측하고 인민의 입장에서 ‘도의적 대통령’을 기다린다. 공임순의 지적처럼 원자탄은 ‘유언비어’ 형태로 한반도에 상륙했고, 지식/정보의 위계화에 따라 대중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⁴⁷⁾, 대중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과학의 위력보다 오랜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진실성을 갖고 있는 ‘정감록’이 도리어 논리적이고 신뢰할만한 출처였다. 과학과 예언이 모두 유언비어 형태로 유포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예언이 과학보다 논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45) 최수정, 『정감록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해방서림, 1948, 46쪽, 52쪽.

46) 최수정, 『정감록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해방서림, 1948, 53쪽.

47) 공임순, 『원자탄의 매개된 세계상과 재지역화의 균열들』, 『서강인문논총』 3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15-16쪽.

이처럼 '정감록'은 새로운 전쟁에 대한 불안을 통해 증식해 나갔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쟁의 발발, 인천상륙작전 및 중국 참전을 예견한 예언서라는 점에서 다시 화제가 됐다. 특히 미국이 참전한 이후에는 예언에서 명시하는 진인(眞人-true man)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Harry S. Truman)을 의미한다는 소문이 나름의 신빙성을 가지고 유포되었다.⁴⁸⁾ 즉 단정과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민중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할뿐더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절망하고 나름대로 앞날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정감록'은 이 같은 절박함을 통해 확산될 수 있었다.

2-2. 오락이 된 믿음과 해석의 유희성

한국전쟁 이후에는 원자탄에 이어 수소탄이 인류의 미래를 기늩히는 좌표로 인식됐다. 관련하여 과거 원폭의 피해와 수폭의 피해를 비교하면서, 수폭의 경우 방사선이 들어있는 재를 뒤집어써서 육체에 이상을 초래할 것이라 진단도 등장했다.⁴⁹⁾ 또한 수소탄의 가공할 만한 위력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공산국가들에게 큰 공포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소탄을 또 다른 구원자로 인식하기도 했다.⁵⁰⁾

이처럼 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민간에서는 3차 대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했던 상황⁵¹⁾에서, 언론은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이 즈음 아직도 정감록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히 있다!”는 문제의식을

48) 백승중, 『백승중의 정감록 산책 (2) 정감록에 미국이 나온다?』, 『경향신문』, 2005.1.13;

〈역사저널 그날 111회-한국인의 비결 제2편 정감록, 변혁을 꿈꾸다〉, KBS, 2016.2.14.

49) 특별기고 『수폭의 정체는 어떠하며 얼마나 무서운가』, 『희망』 1954.6, 38-39쪽.

50) 원달호, 『수소탄은 행복을 줄 것인가』, 『희망』 1954.6, 40-41쪽.

51) 유관자, 『경향싸롱』, 백조사, 1954, 11-12쪽.

개진하기도 했다. 김석영은 ‘정감록’에 대해 “종교도 철학도 아니며 미신이라 斷을 내리기도 싫은” 것이라 설명하며, 과학의 시대 신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진단한다.⁵²⁾ 그런데 그는 논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비판하는 대신, ‘정감록’이 탄생한 600여 년 전 상황을 서술한 후 책 구절을 소개하며 이것이 어떻게 6.25의 발발, UN Z기의 급파, 1.4 후퇴 상황으로 해석됐는지 설명한다. 또한 계룡산으로 피난을 갔던 이들이 북괴의 남침과 인민위원회의 횡포 속에서도 무사하면서 신봉자가 늘어나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현재는 계룡산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수많은 신자가 산재해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파벌도 있다고 정리한다.

이 글에서 흥미로운 점은 당국과 주류 언론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개탄하는 대신, 오히려 전쟁 기간 예언서의 구절들이 어떻게 대중에게 논리적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예언서의 허무맹랑함을 주장하기보다, 어떻게 민중 입장에서 그 구절들이 조리에 맞고 이치에 맞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전쟁 중 신자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입증한다. 이는 민간에서 ‘정감록’을 신봉하게 된 요인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감록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과 유사하지만, 그 구절들을 상세하게 해독하기보다는 예언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여 신자들을 보호할 수 있었는지 흡사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이처럼 한국전쟁 이후 ‘정감록’은 체결되어야 할 전근대적 잔재 혹은 진지한 연구 대상이 아닌 대중지의 흥밋거리로 소비되기도 했다.

대중지 『희망』은 관상과 해몽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기사로 배치하기도 했다. 관상과 손금을 읽는 법에 대해 설명한 이 기사는 “여자는 동자(瞳子)가 크면 남자를 누르려는 상”, “얼굴이 어린이 같이

52) 김석영, 『정감록 논자는 왜 늘어나나?』, 『희망』 1954.6, 51-56쪽.

보이면 가난한 상" 등으로 관상을 구분하고, "인상을 말하는 것은 미신이라고들 늘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⁵³⁾며 전후 척결 대상으로 지목됐던 미신에 나름의 논리성이 있음을 역설한다. 이어 "우리는 나쁜 인상이더라도 행운의 길을 찾자!"며 미신을 불신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행운'을 찾아가자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같은 잡지에 실린 『꼭 맞는 해몽법』⁵⁴⁾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해몽 사례를 소개한 기사로, 독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다양한 해몽 사례를 다소 장황하게 제시하고 있다. 곧 한국전쟁 이후 과학적 인식의 필요성은 한층 증대되었지만, 이를 비롯듯이 미신에 대한 담론은 성행했고 이제 미신은 오락거리로 향유되기도 했다.

시인 이상갑은 『각국 미신의 종별과 현황』⁵⁵⁾을 통해 모든 신앙은 형이상학적이기에 과학이 그 진위를 판단하여 미신의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迷信의 정체는 그의 근원적 宗教에 있어서보다 科學과의 斷層에 있어서 오히려 더 우리에게 알려진다. 迷信이 科學의 實證을 받기 이전에 하나의 信仰 형태로서 존재할 때는 그것은 아직도 未決因인 것이요, 科學의 判결의 結果 斷罪될지 無罪의 언도를 받을찌 그것은 알 수 없다. (...) 科學이야말로 信仰의 社會에서 不純分子인 迷信을 적발, 처결하는 충실하고도 위대한 형사인 것이다.

필자는 과학의 시대 미신을 '불순분자'라 지칭하며 우리 자체의 미신을 소탕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동시에 세계 각국의 미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슬리퍼를 바꿔 신으면 불길하

53) 「여러분의 신수는?」, 『희망』 1954.1, 82-85쪽.

54) 「꼭맞는 해몽법」, 『희망』, 1954.6, 78-97쪽.

55) 이상갑, 「각국 미신의 종별과 현황」 『희망』, 1954.3, 54-60쪽.

다고 생각한다고 전한다. 그 외에도 러시아의 혼례 및 출산, 사망과 길흉 등에 관한 미신을 상세하게 나열한다. 필자는 결말부에서 “우리나라는 현대의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도 엄청나게 느렸기 때문에 이런 미신에 관한 대목에 이르면 더구나 태도가 흐리게 되는 수가 많을 것”이라 진단한다. 이어 “신앙과 미신의 한계를 가려 중세적 봉건의 패잔병을 그저 소탕, 사살하기 전에 그들의 본래의 진의를 살려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순시키는 검토 작업이 필요”⁵⁶⁾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처럼 필자는 과학을 기준으로 신앙과 미신을 구분할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정작 글의 상당 부분을 독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서양 미신을 소개하고 데 할애하고 있다. 잡지 편집진은 이 같은 각국의 미신 소개를 노벨상 수상에 대한 ‘과학여화(科學餘話)’⁵⁷⁾와 함께 배치해 과학과 미신을 모두 오락적인 읽을거리로 배치하기도 했다.

같은 해 식물학자 이민재는 ‘밤나방’을 남북통일의 길조인 ‘태극나비’라 믿는 대중의 무지에 대해 개탄한다. 그는 일반 국민이 곤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에 대해 “과학하는 국민”, 또는 “과학을 해야 할 국민”으로서 반가워하지만, 각 신문지상에 보도된 ‘태극나비’가 희귀하지도 않은 나방에 지나지 않다면 이를 통일의 징조라 간주하는 세태에 대해 개탄한다.

이상과 같은 너무나 특이한 사실이 도하 일류신문에서의 의곡된 해석이 보도되어 그렇지 않아도 『鄭鑑錄』을 찾고, 六갑을 찾기 좋아하는 이 나라 국민에게 또 하나의 혼란을 자아내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결과가 외국 손님들한테 알려진다면 (반드시 알려지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하나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⁵⁸⁾

56) 이상갑, 「각국 미신의 종별과 현황」 『희망』, 1954.3, 60쪽.

57) 「과학여화」, 『희망』, 1954.3, 98-99쪽.

58) 이민재, 「『태극나비』는 과연 길조인가?」, 『희망』, 1954.10, 112쪽.

권위 있는 식물학자가 한탄한 것처럼, 해방 이후부터 꾸준히 과학의 시대 미신을 청산할 필요성을 역설했던 일류 일간지조차 밤나방을 보고 ‘태극나비’라 믿어버렸다. 민중은 물론 언론까지 필요할 때는 운명론에 의지했고, 한국전쟁 이후 미신은 간절한 믿음이자 오락거리로 대중의 일상과 더욱 공고하게 밀착되어 갔다. ‘과학하는 국민’이란 근대의 목표는 그렇게 점차 요원해졌으며, 전후 다시 등장한 신생활운동 역시 한계만을 노출했다. 그리하여 ‘수소폭탄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예언서를 들고 산에서 수양을 하는 ‘머리 땀 청년’이 여전히 스스로 선각자라 칭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⁵⁹⁾ 행운의 편지 역시 “질기고 끈덕지게” 돌아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간첩단과 연계된 불온 문서가 아니라 보낸 이의 여유있는 생활과 늘어진 팔자를 보여주어 받는 이를 미소짓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⁶⁰⁾ 이와 같이 과학의 시대 대중이 유희를 위해 주술적 요소를 소비하면서 미신과 일상이 더욱 유착되어가는 상황에서, 과학과 미신의 문제를 다룬 소설 역시 과학-근대성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3. 전후 소설에 나타난 (반)근대성에 대한 사유

이 장에서는 당대 민간에 팽배했던 샤머니즘의 문제를 다루는 최요안의 <의사없는 마을>(1950), 장용학의 <미련소묘>(1952), 주요섭의 <불느냐 떨어지느냐?>(1958) 등 세 편의 단편소설을 통해 해방기, 전중, 그리고 전후 민중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59) 『수소폭탄 시대에 머리 땀 청년』, 『조선일보』, 1955.3.7.

60) 장수철, 『행운의 편지』, 『신동아』, 1964.11, 155-157쪽.

다. 세 소설은 발표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과학적 신념을 가진 근대적 남성주체가 미신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민중 혹은 자기 자신의 한계와 직면하는 양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겹쳐진다. 이 중 〈의사없는 마을〉은 아직 논의된 적이 없으며, 〈미련소묘〉는 인간 소외의 문제로 접근된 바 있다. 이미향은 이 작품에 대해 “미신이나 과학이나 물신화되었을 때 인간을 소외시키는 제반 조건임을 강조”한다고 해석한다.⁶¹⁾ 〈붙느냐 떨어지느냐?〉의 경우 “불합리한 중학시험제도를 비판한 것”⁶²⁾이라 논의되었다. 백지영은 전후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회의가 소설 속 무속적 세계관에 대한 경도로 이어졌다 설명하며, 〈미련소묘〉는 “내면과 외면의 문제를 들어 근대성의 모순을 드러낸 작품”으로, 〈붙느냐 떨어지느냐?〉는 “근대성이란 영원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해석한 바 있다.⁶³⁾

최요안의 〈의사없는 마을〉(1950)⁶⁴⁾은 사명감을 가지고 궁벽한 C촌을 찾은 K의사가 여전히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마을 사람들과 만나면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다. ‘혼탁한 세태 풍조’에 질린 K의사는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문맹이며 여전히 무당이 위세를 부리는 C촌에서 개업을 하게 된다. 그는 학생 시절 산간 벽지를 찾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떠나오는 길에 미처 “암흑세계에 파묻혀 있는 한 사람의 운명”을 구제하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벽촌의 주민들을 치료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C촌의 주민들은 폭식, 조식, 약식으로 인해 대부분 위병에 시달리고 있고, 아이들은 영양불량과 불결, 무지로 인한 안질(眼疾)을 앓고 있다. 아이들의 눈을 치료해주고 돌아오던 K는 논두렁에서 미꾸라지를 잡고

61) 이미향, 『장용화 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9-20쪽.

62) 진영녕, 『주요섭 작품의 비판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73쪽.

63) 백지영, 『한국 소설에 나타난 무속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93-96쪽.

64) 최요안, 〈의사없는 마을〉, 『백민』, 1950.2.

있는 소년을 만나고, 그의 눈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약을 넣어주려 하지만 소년은 한 여인을 보더니 줄행랑을 친다. K는 적개심에 차 자신을 보던 여인이 누군지 궁금하고, 이튿날 소년의 집을 방문해 그의 아버지로부터 여인은 마을의 무당임을, 소년의 집은 무당의 눈을 소작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눈이 아픈 소년은 눈병을 낫게 해준다는 무당의 말을 믿고 미꾸라지를 잡았고, 무당은 마을에 K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K는 이불 하나 없이 가난하게 생활하는 소년의 가족이 마음에 걸린다. 이후 K가 마을의 유력자인 정 주사의 어린 아들을 고쳐준 것을 계기로, 의학을 기피하던 마을 주민들이 K를 찾기 시작한다. 이 중에는 의학의 힘을 과신하는 자가 있어 K를 괴롭게 하기도 한다. K는 정 주사의 신임을 얻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데, 절간에서 부처 앞에 백 원짜리 몇 장을 시주하는 사나이를 보게 된다. 그는 미꾸라지 잡던 소년의 아버지로, 아픈 아내에게 이불 하나도 덮어주지 못한 가장이었다. K는 마을 사람들의 생활에 “견잡을 수 없는 암흑이 깃든 것”에 절망한다.

어린 아이의 숨결 같고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조효하고 아름다운 풍경이다. 그러나, 이 고장에 처음 발을 디려 노았을 제와 같은 감명은 없었다. 평화스럽고 아름다우게 보이는 이 풍치 속에 사는 마을 사람들의 생활면의 매디 매디에는 견잡을 수 없는 암흑이 깃들이고 있는 사실에 눈을 가릴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의사없는 방방곡곡에 의사는 가야 한다. K의사는 비탈길을 휘청휘청 내리면서 법당에서 절을 하고 있는 사나이의 모습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굶주려가며 시주금을 갖이고 그가 부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무엇이었던가!⁶⁵⁾

소설은 의사 K의 사명감이 실현되는 순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

65) 최요안, <의사없는 마을>, 『백민』, 1950.2, 238쪽.

전히 미신에 강박되어 있는 사람들, 암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다시 조명한다. 계몽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K가 무당의 굿이 무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지만, 가족을 굿기는 사나이 는 여전히 간절하게 실체 없는 대상을 향해 무언가를 기원한다. 그 간절 함의 정체, 근원을 알 길이 없는 K는 허망함과 혼란스러움에 휩싸이고, 작가는 그렇게 ‘의사없는 마을’이 쉽게 갱생되지 않을 것을 예고한다. K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들의 믿음이 나름의 근거와 체계를 가지고 극한 상황에서도 이어지면서, 근대적 남성주체는 자신의 한계, 즉 과학의 한계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장용학의 〈미련소묘〉⁶⁶⁾(1952)는 전쟁 중 잡지 『문예』에 발표된 소품 으로, 무명이기는 하나 ‘모더니스트’로 알려진 소설가 상주가 두꺼비가 상징하는 미신에 집착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희화(戲畵)’처럼 묘사되지만, 상주와 그의 어머니가 두꺼비 에 매달리게 된 배경에는 전쟁 중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형에 대한 끝나 지 않은 애도와 징용의 상처가 겹쳐 있다. 어머니는 용한 무당을 통해 죽은 형의 귀신을 만나 “세월이 이렇게 된 것은 생각지 않고 상주만 나 무라서 그 애 마음이 상해”있다는 충고를 듣고, 그 신탁(信託)을 받은 다음날 두꺼비가 집에 기어 들어오자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소설가 상주 는 과거 흥남질소비료공장에 징용을 갔던 인물로 추정되는데⁶⁷⁾, 그는 공기를 먹고 산다는 두꺼비를 보며 과거 흥남질소공장에서 목도한, 공 기를 끌어들이는 압력으로 물체를 누르는 거대한 기계장치를 떠올린다.

66) 장용학, 〈미련소묘〉, 『문예 전집』, 1950.12.

67) 임미진은 학도병으로 입대했다 해방을 맞았던 장용학의 이력을 감안해 ‘전후’의 개념 을 확장시켜 작가의 문학세계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임미진, 「장용학 소설의 담론 연구: 식민지체험과 언어 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5쪽.)

그리고 두꺼비의 출현 이후 이제껏 미신 속에서 살아온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점차 이성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근대적인 문장'을 쓰는 소설가인 나는 두꺼비가 상징하는 미신에 이끌리게 된다. 식민지시기 징용 노동자로 끌려간 경험이 있고, 지금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주의 상황은, 그를 '복두꺼비'에 더 매달리게 만든다.

그렇게 두꺼비를 둘러싼 어머니와 상주의 태도가 엇갈리고, 상주는 아무 것도 먹지 않는 두꺼비를 영물이자 자기 자신으로 여기게 된다. 소설은 두꺼비의 존재에 집착하는 상주의 상황을 관조하는 전지적 작가의 시선에서 마무리된다. 미신에 몰두하게 된 상주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설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상주가 두꺼비를 보며 흥남공장의 기계장치를 떠올리고, 미신과 과학의 경계에 대해 고민하는 지점이다.

그러다가 불쑥 상주는 막 회전하는 기찻소리가 생각났다. 흥남(興南) 질소공장(窒素工場)의 거대한 기계장치다. 공기를 끌어들어서 웬만한 철 따위는 엇처럼 휘어질 만한 압력으로 꼭꼭 눌렀다간 탁 놓고 주었다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다시 부풀어다 꼭꼭 눌러서 온도를 낮추어 마침내 액체가 된 것을 원소(元素)로 분해시켜가지곤 비료를 만든다. 비누를 만든다. 『다이아마이트』를 만든다. 또 뿔 또 뿔…….

저 질편한 권태같은 부대 속에 그와 비슷한 장치가 들어있단 말인가. 그럼 그 좋은 입을 가지고 두꺼비는 정말 아무 것도 안 먹는단 말인가 …….

그는 요지음 迷信과 科學사이에 일맥 통하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러하게 비논리적(非論理的)으로 비쳐질 冥想 속에서 하품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았다.⁶⁸⁾

상주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두꺼비의 불룩불룩한 '부대'에서 질편한 권태를 보고, 과거 흥남공장의 노동자로 일하던 기억을 떠올린다. 차

68) 장용학, 〈미련소묘〉, 『문예-전시판』, 1950.12, 158쪽.

승기에 따르면 식민지시기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가 있던 흥남은 니혼 질소의 대표자가 세운 일종의 ‘도시’였으며,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군수산업생산부문 생산에 주력하면서 이 ‘기업도시’의 군·정·산 결합체로서의 성격이 분명해졌다.⁶⁹⁾ 그에 따르면 기업도시 흥남의 성장의 배경에는 총독부의 지원이 있었고, 이 외중에 “흥남의 공기는 질소를 얻기 위해서만, 강물은 전력을 만들어 내기위한 것으로만, 단전은 마그네슘의 원료를 캐내기 위한 곳으로만, 인간의 신체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것으로만 흥남의 자본·국가의 콤비나트(combinaat)와 연결”⁷⁰⁾됐다. 소설 속에서 공기만 먹는 듯한 두꺼비의 불룩한 부대는 과거 공기를 질소로 바꾸고, 조선인의 노동을 착취했던 거대한 기계장치를 떠올리게 한다.

“극단적 사회 양극화와 환경오염이라는 근대의 대표적 역기능이 결집되어 있는”⁷¹⁾ 흥남에서의 경험, 그리고 두꺼비와의 만남은 상주에게 근대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 만든다. 소설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꺼비에 대한 상주의 맹목적인 믿음은 과학을 신봉하며 전쟁을 준비하던 전시체제하 상황과 닮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맹목적인 믿음과 염원이라는 점에서 미신과 과학은 공통항을 갖게 되고, 그 경계가 모호해져버리는 과정에서 근대적 남성주체의 자기 세계 역시 허물어져 버린다.

1958년 5월 『자유문학』에 발표된 주요섭의 〈불느냐 떨어지느냐?〉⁷²⁾는 중학교 입시를 앞둔 아버지의 상념을 다룬 소설이다. 아들 수남이 중

69) 차승기, 『자본, 기술, 생명-흥남-미나마타水災 또는 기업도시의 해방전후』, 『사이』 1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421-422쪽.

70) 차승기, 『자본, 기술, 생명-흥남-미나마타水災 또는 기업도시의 해방전후』, 『사이』 1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429쪽.

71) 한만수, 『북촌과 남촌/흥남/동경 사이의 거리』, 『한국문학연구』 4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215쪽.

72) 주요섭, 〈불느냐 떨어지느냐?〉, 『신한국문학전집』(6), 어문각, 1972.

학교 입시 시험을 보러 가는 날, 일제시대 전문학교를 졸업한 철규는 1교시 시험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란다. 아들은 시험을 잘 봤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과거 동네방네 소문난 관상쟁이 겸 점쟁이의 손주였던 철규는 애써 무시했던 미신을 떠올린다. 할아버지로 인해 “재래적인 미신을 포함해 모든 종교, 미신에 대해 거의 광적인 적개감과 반발심을 품게 되었던” 철규는, 시험 전에 아들의 수험 번호 ‘48’이 사사사(死死死)를 떠올리게 한다는 아내의 호들갑에 고함을 질렀다. 또한 시험 당일 아들에게 엿을 먹이겠다는 아내에게 실소를 보내며 미역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지만, 막상 시험문제와 아들의 반응을 보자 당황하며 그 재래적인 미신을 떠올린다. 아들의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 철규는 합격자의 방을 붙이는 학교에 홀로 나가 시험 전 아들에게 엿이라도 먹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갑자기 「시대 착오다. 시대 착오……」라고 고함을 친다.

〈불느냐 떨어지느냐?〉는 기형적인 입시제도하에서 그토록 거부했던 미신이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할아버지의 기억으로 인해 애초 모든 믿음을 거부했던 철규는 입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간 평가 절하했던 미신에 몰두하게 된다. 아들 수남은 중학교 입학에 위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고, 그의 아내 역시 아들의 공부를 위해 친척집을 돌며 교과서를 빌렸다. 하지만 “모집 정원은 이만 삼천 명밖에 안되는데 지원자 수는 삼만 칠천 명인” 상황, ‘구단위 고사’의 폐지와 ‘무시험 입학’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누구도 수남의 입학을 보장할 수 없다.⁷³⁾ 소설

73) 당시 언론은 중학입시와 관련해 시험에서 떨어진 아이들의 앞날을 우려하며, ‘무시제는 시기상조이며, 입시문제에 있어서도 현실 아동 사회에 맞는 교육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중학 입시 떨어진 학생은 어디로』, 『경향신문』, 1958.3.14, 2쪽; 『새해 중학 입시에 바람』, 『동아일보』, 1958.11.11, 2쪽.)

은 수남의 합격 여부는 보여주지 않은 채, 철규가 초조하게 발을 구르는 시점에서 종결된다. 불안정한 입시제도로 인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신을 경멸했던 아버지는 그간 지워버렸던 재래적인 기억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6.25 동안 때 일만 보더라도 그해가 단기 4283년이라고 하여 국민학교 학생들까지도 그 숫자를 거꾸로 부르면서 3.8선이 이사(移舍)를 가니까 통일이 된다고들 떠들었다. 이 숫자풀이가 엉터리였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자, 소위 <정감록> 권위자로 자처하는 늙은이들은 그 책에 四天八王이라는 문귀가 있는데 그것을 파자(破字)하면 4288년에는 一土가 된다는 뜻인 만큼 그 해에는 통일이 틀림없다고 예언하는 것을 철규 자신이 직접 들은 일이 있었다.⁷⁴⁾

전쟁을 거치면서 민간에서 국제 정세와 ‘정감록’을 연계시켜 예언의 논리적 근거들을 마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설 속에서도 민간에서는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합리적 이유들을 만들어간다. ‘정감록’은 불확실한 시대 민중의 해석에 논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철규의 경우 과거 이 모든 예언이 빗나가고 할아버지는 물론 신이 내렸다는 옆집 무당의 예언 행위 역시 연극이라는 것을 목도함으로써, 선거를 앞두고 다시 관상쟁이와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납북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점쟁이에게 의지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식의 입시를 앞두고는 더 이상 미신을 미혹한 것이라 치부하지 못한다. 유연비어처럼 퍼지는 미신은 불확실한 입시제도하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현혹시킨다.

살펴본 것처럼 세 소설은 미신을 배척했던 근대적인 남성주체의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을 담고 있다. 세 소설에는 각각 과학을 신봉하는 의사,

74) 주요섭, <불느냐 떨어지느냐?>, 『신한국문학전집』(6), 어문각, 1972, 393쪽.

모더니스트 소설가, 미신의 진상을 목도했던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의사없는 마을>의 K는 결국 빈곤과 불결, 미신이라는 암흑 속에서 마을 주민들을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미련소묘>와 <붙느냐 떨어지느냐?>의 소설가와 아버지는 타인을 계몽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던 의사의 경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에 자신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근대적 체계에 대한 회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과학과 미신, 근대적인 것과 반근대적인 것의 경계는 모호해지며, 남성주체는 그간 반근대적, 전근대적이라 치부해 왔던 미신이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이 해방 이후와 전쟁 중, 그리고 전후 발표된 세 소설이 포착하고 있는 것은 남성주체의 견고한 자기 인식, 근대성에 대한 확신에 균열이 발생하는 순간이었다. 작가들은 그렇게 과학과 합리성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당국이 유포한 지식에 대한 회의를 드러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냉전의 시대 대항담론으로서 주술의 의미

살펴본 것처럼 두 번의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미신은 절망의 피신처이자 시대를 견디는 방법이 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부녀층이 미신에 몰두하고 있다는 기사⁷⁵⁾는 주류 담론장에서 미신으로 치부됐던 요소들이 정보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국내외 정세를 읽는 경로였음을 추측케 한다. 여기서 해방 이후 유포된 미신-유언비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과학의 시대 당국의 강력한 척결의지에도 불구하고 미신이 더 확산되었

75) 『과학세대에 역행하는 미신』, 『민주중보』, 1949.2.13, 2쪽.

다는 점, 민간에서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를 감안해 예언에 과학성을 부여한다거나 이를 오락처럼 향유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미신은 대중의 일상과 더욱 밀착되어갔고, 당국이 유포한 과학담론에 대하여 민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대항담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

미신은 또한 해방 후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과학, 일상과 유리된 근대담론에 대항해 실체없는 근대를 재구성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당국에서 “미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과학이 발달하여야 한다”⁷⁶⁾고 역설했으나 과학이나 미신 모두 어찌면 유언비어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민중은 ‘정감록’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고에 논리성을 더하기도 했고 행운의 편지를 돌리며 믿음과 오락을 접목시켰다. 그 결과 미신의 성행과 미신타파운동의 기획이라는 익숙한 흐름은 해방과 전쟁을 거쳐 군사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도 이어졌으나, 새마을운동 이후에도 미신이 당국의 의지대로 척결되지 않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 청산 운동도 마감됐다.

전후 근대성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 소설의 경우 이 같은 시대적 분위기 및 대중의 감성구조를 반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의사없는 마을>은 의학·과학의 한계에 대해 고찰했고, <미련소묘>의 경우 근대적 남성주체가 미신에 집착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과학과 미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양상을 조명했다. 또한 <불느냐 떨어지느냐?>는 기형적인 입시제도하에서 전근대적이라 치부해버렸던 미신이 남성주체를 회의를 휩싸이게 하는 순간을 포착했다. 미신은 그렇게 과학이 대신하지 못하는 믿음의 영역을 확보했고, 전중, 그리고 전후의 소설은 근대성에 대한 회의가 엄습하는 순간을 그렸다.

이처럼 두 번의 전후 ‘정감록’과 행운의 편지 등 일련의 미신행위는 대중의 불안과 막연한 희망을 통해 증식해 나갔고, 당국은 이 불온한 유언

76) 문교부, 『우리나라의 발달』 6-3, 1952, 5쪽.

비어를 강하게 척결하고자 했지만 그 근원적인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일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미신은 과학을 통한 부국강병이 강조되던 시기 과연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는 또한 전쟁에 대한 불안과 당국에 대한 회의가 교차되었던 시대의 병폐 및 당대 민중의 필요성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좌표이기도 했다.

이를 감안한다면 두 번의 전후는 '과학의 시대'인 동시에 근대화 이전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주술의 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해방 후 과학이라는 당국의 믿음과 주술이라는 민간의 믿음이 교차되면서, 곧 위로부터의 근대화 담론과 이에 대한 민간의 대항담론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전후의 근대성이 구축되었던 것이다. 이 대항담론은 해방 이후 새로운 부국강병을 제창하며 등장한 과학주의와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허무맹랑하며 불온한 것으로 치부되었던 대상들이 나름의 논리성을 확보해가면서 구축된 대중의 지식체계였다. 대중의 감정, 기억을 바탕으로 생성된 이 체계는 경험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자 지식이었기에, 결코 청산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민중의 일상에서든 민간 신앙은 반복되는 미신타파운동 속에서도 질긴 생명력을 이어가면서 전후 사회에 민중의 사고, 감정을 기입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과학의 시대'이자 '주술의 시대'였던 전후는 모순의 시대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혼란스러움이 곧 한국적 근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부터 군사정권 등장 이후까지 가시적인 계몽의 성과가 홍보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위로부터 구축된 근대성을 뒤흔드는 대중의 감정, 의식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냉전질서에 입각한 전후 근대성의 실체를 재구해야 할 필요성 역시 여기에 있으며, 주술의 세계를 기준으로 전후를 성찰한다면 시대를 읽는 새로운 관점이 확보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민성』, 『민주증보』, 『백민』, 『신동아』, 『신천지』, 『조선일보』, 『희망』

장용학, 〈미련소묘〉, 『문예-전시판』, 1950.12.

주요섭, 〈불느냐 떨어지느냐?〉, 『신한국문학전집』(6), 어문각, 1972.

최요안, 〈의사없는 마을〉, 『백민』, 1950.2.

문교부, 『우리나라의 발달』 6-3, 1952.

윤정도인, 『비난정감록진본』, 세창서관, 1945.

원달호, 『수소탄은 행복을 줄 것인가』, 『희망』 1954.6.

유관자, 『경향싸롱』, 백조사, 1954.

이민재, 『「태극나비」는 과연 길조인가?』, 『희망』, 1954.10.

이상갑, 『각국 미신의 종별과 현황』, 『희망』, 1954.3.

임경일, 『정감록에 대하여』, 『신천지』, 1946.7.

장수철, 『행운의 편지』, 『신동아』, 1964.11.

쫄나단 킬본, 『원자폭탄의 정체』, 소우생 역, 『민성』, 1945.12.

최수정, 『정감록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해방서림, 1948.

홍기문, 『정감록의 분석적 연구』, 『신천지』, 1946.7.-8.

『여러분의 신수는?』, 『희망』 1954.1.

『과학여화』, 『희망』, 1954.3.

『꼭맞는 해몽법』, 『희망』, 1954.6.

『수복의 정체는 어떠하며 얼마나 무서운가』, 『희망』 1954.6.

2. 논문과 단행본

공서옥 외, 『근대에 맞서는 근대』, 현실문화, 2014.

공임순, 『원자탄의 매개된 세계상과 재지역화의 균열들』, 『서강인문논총』 3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5-43쪽.

_____, 『원자탄과 스파이, 전후 세계상의 두 표상』, 『민족문화사연구』 48, 민족문화사연구소, 2012, 242-277쪽.

- 김은경, 『1950년대 신생활운동 연구』, 『여성과 역사』 11, 한국여성사학회, 2009, 203-240쪽.
- 김 탁, 『정감록 새 세상을 꿈꾸는 민중들의 예언서』, 살림, 2005.
- 백승중, 『백승중의 정감록 산책 (2) 정감록에 미국이 나온다?』, 『경향신문』, 2005.1.13
- _____, 『백승중의 정감록 산책 (19) 1923년 일본인들의 정감록 처형』, 『경향신문』, 2005.5.19.
- 백지영, 『한국 소설에 나타난 무속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변은진, 『유언비어를 통해 본 일제말 조선민중의 위기담론』, 『아시아문화연구』 22,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53-79쪽.
- 오제연, 『1970년대 '유언비어'의 불온성』, 『역사문제연구』 32, 역사문제연구소, 2014, 187-226쪽.
- 이미향, 『장용학 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이방원, 『일제하 미신에 대한 통제와 일상생활의 변화』, 『동양고전연구』 24, 동양고전학회, 2006, 281-134쪽.
- 이필렬, 『한반도에서 원자력이 지닌 해방자-구원자 이미지와 그 결과들』, 『동방학지』 16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6, 23-45쪽.
- 임미진, 『장용학 소설의 담론 연구: 식민지체험과 언어 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임종명, 『해방공간과 신생활운동』, 『역사문제연구』 21, 역사문제연구소, 2012, 219-265쪽.
- 조경달, 『민중과 유토피아』, 허영란 역, 역사비평사, 2009.
- 진영녕, 『주요섭 작품의 비판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 차승기, 『자본, 기술, 생명-홍남-미나마타(水俣) 또는 기업도시의 해방전후』, 『사이』 14, 국제한국문화학회, 2013, 419-452쪽.
- 한만수, 『북촌과 남촌/홍남/동경 사이의 거리』, 『한국문학연구』 4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201-236쪽.
- <역사저널 그날 111화 '한국인의 비결' 제2편 정감록, 변혁을 꿈꾸다>, KBS, 2016.2.14.

Abstract

'Jeonggamrok(鄭鑑錄)' and 'a Chain Letter' - Two Following the War, One Fatalism

Jun, Jee-Nee(Ewha Woman's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consider a meaning that 'superstition(迷信)' has as for the masses in the middle of the complicated international situation, with illuminating the two sights following the war that had been coexisted a fever of prophet 'Jeonggamrok(鄭鑑錄)' along with curiosity about science in the wake of the Pacific War and the Korean War.

Following the liberation, the fearful power of atomic bomb was spread like a rumor through media. In a situation that the people are difficult to get access to the true nature of modern science, 'Jeonggamrok', which has honesty based on the experience of long life, was rather a logical and reliable source. In addition to this, following the Korean War, superstition was adhered more firmly to the people's daily life as entertainment. All of Choe Yo-han's <Village with No Doctor>(1950), Jang Yong-hak's <Sketch with Regret>(1952), and Ju Yo-seop's <Whether Clinging to or Dropping?>(1958), which were released under this background, have a common denominator in addressing the aspect that a modern male subject, who has a scientific belief, confronts the limitation of the people or him himself with failing to dispel superstition. These characters come to fall into confusion as saying that the superstition, which had been regarded as what is anti-modern and pre-modern, might be most rational.

As examined, a series of the superstition act such as 'Jeonggamrok' and a 'chain letter' in two times following the war proceeded with having been increased through the people's anxiety and vague hope. The authorities intended to strongly eradicate this disturbing rumor. But it was impossible to eradicate this unless the fundamental anxiety is solved. That is to say, the media and the literary text following the war were capturing the moment that skepticism about modernity comes over and the moment that there was a crack in conviction of science. The superstition was also

a coordinate available for confirming most correctly the malady in the times and the necessity of the masses in those days that had been crossed an anxiety about the war and a skepticism about the authorities.

(Key Words: Post-war Period, 'Jeonggamrok(鄭鑑錄)', 'Chain Letter', Science, Superstition, Modernity, Rumor, Taboo)

논문투고일 : 2016년 7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8월 3일

수정완료일 : 2016년 8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8월 17일